

나는 서울역입니다.

[기억을 품은 공공공간 & 교육, 문화, 도시 정책의 가치]





서울역에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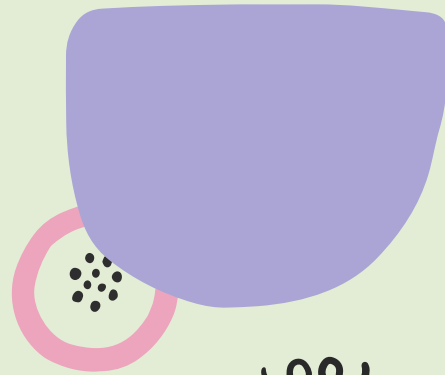
누군가는 안에서 울고
누군가는 밖에서 손을 흔든다.

시간도, 사랑도, 사연도
이 역을 지나간다.

그래서
서울역은 그냥 '건물' 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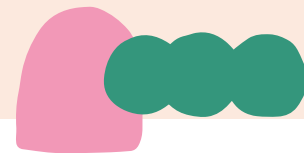
당신의 이야기가
멈춰 선 그 자리다.

[이정숙 창작시]





그림책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이 삶이 오간 장소이고 서울역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통해 그 의미를 되짚습니다.

서울역 건축 당시의 모습부터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 시절의 아픔, 한국 전쟁과 피난민의 이동, 산업화 시절의 분주함...
그리고 오늘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옛서울역(문화역서울284)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울역이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소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서울역이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공간’임을 느끼게 해 줍니다.





나의 서울역은 어디인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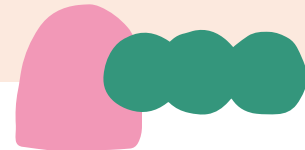


기억의 남은 장면 낭독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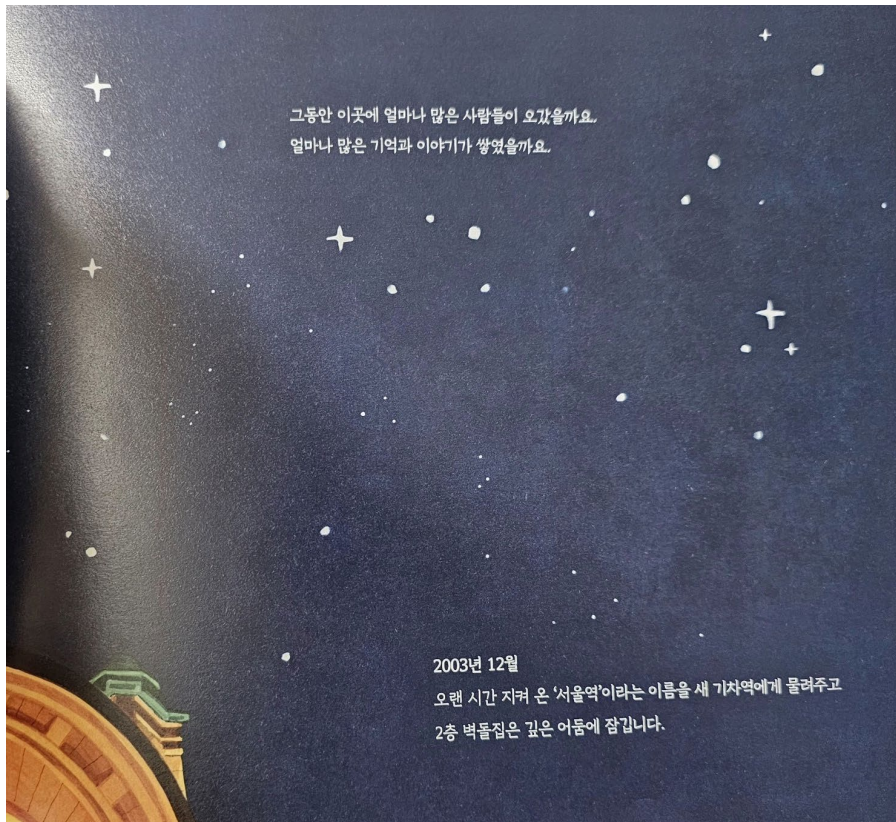
기억의 장면 낭독극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 입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고 편안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



기억의 장면 낭독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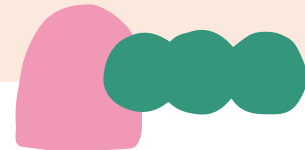


그 동안 이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억과 이야기가 쌓였을까요.

2003년 12월
오랜 시간 지켜 온 '서울역'이라는
이름을 새 기차역에게 물려주고
2층 벽돌집은 깊은 어둠에 잠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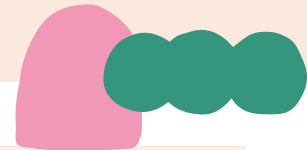
나누고픈 질문들...



- ✓ 서울역처럼, 나도 변화하고 싶은 공간이 있나요?
- ✓ 삶에서 떠나야만 했던 기차역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 ✓ 역사는 건물에만 남을 수 있나요?
- ✓ 기억을 품은 공간에 나의 삶을 어떻게 담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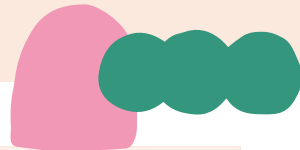
정책 제안 배경



- ✓ 서울역과 같은 역사성이 있는 공공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시민의 감정, 기억, 정체성이 깃든 공간이다.
- ✓ 그러나, 현재 많은 도시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단절, 방치, 표준화된 개발에 의해 시민교육적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 교육 분과 중심의 시민 정책이 삶과 연결된 공간기반 학습으로 확장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책 목표



- ✓ 기억이 깃든 장소를 통해 시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
- ✓ 장소 기반 교육을 실천하여 감성적 접근과 비판적 사고를 함께 촉진한다.
- ✓ 방치된 공공 공간에 생명력과 교육적 가치를 부여한다.
- ✓ 세대 간 기억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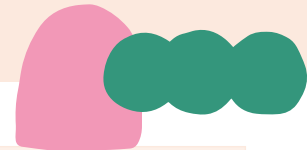
춘천이 서울역과 같이 문화적 전환이 가능한 이유



- ✓ 춘천은 이미 ‘감성도시’, ‘호반의 도시’, ‘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음.
- ✓ 공간 기반의 시민 기억 교육이나 장소, 스토리텔링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아직 미흡
- ✓ 도시의 기억과 개인의 정서를 연결하는 교육적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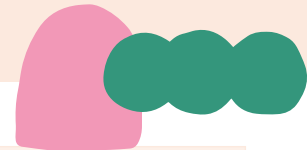
정책 하브루타 질문 (쟁점기반)



- ✓ 서울역이 단순한 기차역을 넘어선 의미는 무엇인가요?
- ✓ 기억이 깃든 공간을 '보존' 할 것인가 '재개발'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 ✓ 공공 건축물의 문화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 ✓ 서울역과 같은 역사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까요?



정책 하브루타 질문(적용기반)



- ✓ 우리 지역에도 '기억을 품은 공간' 이 있다면 어떻게 시민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 ✓ 교육/문화 정책에서 '장소 기반 기억 교육' 을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 ✓ 직능위 교육분과 차원에서 '기억의 공간을 읽는 시민교육' 을 추진한다면 어떤 구조가 적합할까요?



감사합니다.